

다산포럼



이기영
초록교육연대 공동대표
호서대학교 명예교수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발언으로 떠들썩하다. 창의성·윤리성 등 교육의 기본 목표는 다 사라지고 오로지 의대 점수 따기 경쟁만 남은 한국 교육의 본 모습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은 교육 개혁은 아예 말리려고 단계적 문제만 해결하는 관리형으로 일관해 오다가 오히려 창의성 교육을 후퇴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젠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을 위해 국영수 위주의 전근대적 기능 교육보다 질문 및 토론을 중심으로 상상력과 창의력 융합력 등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스스로 공부'로 바뀌어야 한다.

2000년 초 통화를 쓰면서 독서 운동을 해오던 인근 초등학교 선생님 몇 분이 내 연구실을 찾았다. 아산 거산분교는 학생이 점점 줄어들어 폐교 선고를 받았는데 이 선생님들이 시골인 거산초로 전근을 자원해 생태 혁신 학교로 살고 싶으니 자문위원장직을 수락해 달라는 것이었다. 선생님들과 상의해 우선 아이들 체험 학습을 도울 유기능 전문가, 양봉 전문가, 숲 해설가, 수의사, 건축사 등 전문가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봄이면 나무를 채취하고 썩을 뜯어 운동장에 모여 찜찜을 떠먹으며 썩은 찜찜미도 만들어 먹었다. 양봉전문

‘킬러 입시’를 ‘창의적 스스로 공부 축제’로

가는 벌에 쏘지 않고 벌통에서 꿀 따는 법을 가르쳐 주어 아이들이 직접 꿀을 따 먹도록 해 주니 신이 났다. 아이들이 직접 텃밭 농장에 심은 고구마는 물론 가을엔 배추로 절임 김치를 담가 우리 집으로도 보내 주었다. 급식용 채소들도 아이들이 직접 재배했고 나머진 주변 농민들이 생산한 로컬 푸드로 공급해 '유기농 무상 급식'을 실현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자연 체험 수업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에 직접 참여하면서 공부 가 재미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전국에서 학생들이 전학을 왔다. 게다가 주말이나 방학이면 다른 학교 선생님까지 버스를 대절해 거산초교의 수업 방식을 배우러 몰려왔다.

이렇게 시작된 거산분교의 혁신 교육은 3년 만에 전교생이 150명을 넘어 2005년 전국 최초로 분교가 본교로 승격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2007년엔 경기교육감 선거에 나선 김상곤 교수가 찾아와 거산의 혁신 교육에 대해 들은 뒤 '유기농 무상 급식'을 슬로건으로 내걸어 진보 계열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자 700여 개의 혁신 학교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다음 해 보수 정권으로 바뀌자 일제 강점기와 독재 정치의 전유물이었던 전국 학력 고사가 부활되면서 혁신 교육은 위축되었고 '김치된장 청국장' 노래도 교과서에서 사라졌다.

그 후 10여 년이 지난 몇 년 전 아산의 거산초가 전국에서 가장 창의적인 학교로 뽑히고 미래의 자연 학교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특히 십여 명 남짓했던 초기 동네 출신 거산 졸업생들이 다들 한국 명문대와 미국 아이비리그에도 합격했다는 소식이 기쁨을 더해 주었다. 당시 난 이 학생들이 거산 졸업 후 이어지는 입시 지옥 생활을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한데 정말 다

행이었다. 오래 전 졸업식 때 이 학생들이 써 책으로 묶여준 '감사의 편지'를 꺼내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엔 학생들마다 답이 죄다 다를 수 있는 각자만의 상상의 메타버스 세상이 올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답이 오직 하나로 사고를 경직시키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킬러 문항이나 만드는 전근대적 이상한 교육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제 위원들이 오로지 변별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면피용으로 만든 킬러 문항이 결국 사교육비를 25조 원에 이르게 만들고 아이들을 입시 지옥에 빠뜨린 것이다.

수학의 경우 미국의 SAT는 그저 중학교 수준의 미적분 개념의 이해를 구하는 기본 학력만을 요구한다. 독일은 의대 등 지원자가 많은 대어섯 개 학과만 입학생 수를 제한하는데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할 경우 20%는 아비투어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배정되고, 20%는 입학대기자에게 돌아가 대기할수록 점수가 높아져 웬만하면 의대도 2~3년 정도 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다. 나머지 60%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선발하는데 일반 학과는 아비투어 성적표와 지원서를 제출하면 대체로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독일은 입학이 쉬운 대신 대학의 학과 시험과 졸업 사정이 매우 까다로워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무리하게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중간에 진로를 바꾸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자연 해소된다.

일생 단 한 번 써먹을 일도 없는 요령만 키우는 킬러 문항을 속지하기 위해 밤 12시까지 학원에 다니는 등 극히 비효율적인 '돌격 앞으로 킬러 입시' 생지옥을 4차 산업혁명 사회가 원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자연 체험과 발표·토론 위주의 '스스로 공부' 축제로 바뀌보자.

社說

광주비엔날레 실추된 위상 재정립 고민해야

제14회 광주비엔날레가 흥행과 예술성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막을 내렸다. 이번 비엔날레는 광주시 북구 비엔날레 전시관 등지에서 '몰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soft and weak like water) 주제로 31개국, 43개 도시, 작가 79명이 출품한 340여 작품을 선보였다. 코로나 이후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풀어 주는 미술 축제로서 기능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최종 기간(94일) 열렸음에도 관람객 50만 명에 그쳤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행사 성격이 다르지만 순천만정원 박물관이 같은 기간 500만 명을 넘어선 것에 비하면 초라하다. 작가들이 전시 주제에 맞춰 내놓은 작품들도 관람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게 중론이다. 현대미술을 선도하는 대가나 신예들의 작품 없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탓이다. 미술계에서 "광주비엔날레가 알려지지 않는 작가들의 데뷔 무대로 전락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는 맥락도 다르지 않다.

심의 위원들 "특혜" 지적에도 용도 변경 됐다니

전직 광주시장 아들 사업체가 소유한 소촌농공단지 내 토지 용도 변경 심의 과정에서 상당수 심의위원들이 사업의 적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특혜 시비를 우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일보가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3월 열린 1차 심의에선 12명의 참석 위원 대부분이 용도 변경안에 대해 부실한 서류, 땅값 상승에 따른 특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A 위원은 "민간에서 (제조 시설 용지를) 지원 시설 용지로 바꿔 달라고 하는 사례는 처음 본다"며 "특혜성이 있는 민간 개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B·C 위원도 "심의위를 통과하면 바로 허가 단계로 가는데, 공공이 아닌 민간 개발은 가치 상승 등 특혜 부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심의위원들은 사실상 '승인 불가'로 의견을 모으는 분위기였지만 가부(可否) 투표를 앞두고 광주시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투표를 미루고 재심의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후 반대 목소리를 냈던 1차 심의위원들은 재심회에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 광주시 담당자가 심의위원 명단을 광산구 측에 유출했고, 심의사가 이를 이유로 심의위원을 전원 교체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해 6월 2차 심의에선 24개 조건을 담아 용도 변경 승인 여부를 광산구가 결정하라는 통보 결정이 내려졌다.

無等鼓

'세상 가장 깊은 아픔 속에서 흘러 아버지 같은 꿈, 검은 눈물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최근 화순군 동면 북암리 구암삼거리로 지나다 다리 난간에 걸린 플래카드를 보고 차를 멈춘다. 그곳에서 400여m 떨어진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 앞에도 여러 개의 플래카드가 나열되어 있었다. 화순군과 광운상공회소,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 등이 내건 것들이었다.

'화순 발전의 원동력, 화순광업소 노동자 여러분의 노고를 기억하겠습니다.'

화순광업소 입구에는 '대한민국 석탄산업 시발지'와 '전남 5-18 사적지(화순3호)' 표시석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학원경(1883-1949)이 당시 공내부의 허가를 받아 광업권을 등록하고 1908년 처음으로 석탄 채굴을 시작하여 우리나라 석탄 산업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길 건너편에는 1949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빨치산 잔당들에 의해 전사한 경비군인 두 명과 마을 주민 네 명을 기리는 위령

비가 세워져 있다. 화순광업소 주변의 기념비와 위령비를 통해 화순탄광의 지나온 근현대사를 잠시나마 돌아볼 수 있었다.

'국내 1호 탄광'으로 개발된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가 최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1905년 4월 5일 화순 대지주 박형경이 구암리 흑토재(黑土埕) 일대를 중심으로 구암탄광 광업권을 등록한 지 118년만의 폐광이다. "디지털 화순문화대전"에 따르면 "5일장이 실시되던 시절, 화순 지역 '장날'은 화순광업소 직원 월급 날이라고 부를 정도로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고 지역 경제를 견인해 온 화순 탄광의 호황 시절을 기록한다. 이제 실직 광부들의 일자리 대책과 지역 경제 침체, 폐광 대책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과제 해결이 시급해졌다.

앞으로 광업소 시설을 활용해 화순탄광의 채탄 역사와 석탄 산업, 광부들을 기억할 수 있는 자그마한 전시관이라도 세워졌으면 좋겠다. 지하 수백m 탄광 막장에서 석탄을 캐낸 '산업 역군' 광부들의 검은 눈물과 땀방울이 잊혀지지 않도록.

/송기웅 예향부장 song@kwangju.co.kr

Table with columns for publication info: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Publisher: 崔宰豪, Issue: 1952년 4월 20일 創社, Website: www.kwangjuilbo.com, etc.

김하림의 차이나 4.0



조선태 중국어문화학과 명예교수

중국의 농업, 농촌, 농민과 농민공

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한편으로는 농촌과 농민의 희생에 기반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입이 낮고 노동강도 인부 격차는 확대되어 가고 사회적 제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농민, 너무 낙후되고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농촌, 생산력이 부족한 농업, 이 세 문제가 여전히 중국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현재 후커우(戶口: 중국이 실시하고 있는 일종의 거주지 제한 제도)를 중심으로 본다면 전체 인구의 36%는 도시 후커우, 64%는 농촌 후커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중국의 2022년 도시 상주 인구는 9억 2천만 명이고 농촌 상주 인구는 5억 8천만 명으로 65%의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촌 후커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도시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들 중에 이른바 '농민공'이라 불리는 계층들은 대략 3억 명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들은 계절에 따라 도시로 이동하거나, 혹은 농촌 후커우를 유지한 채 지속적으로 도시에서 생활하기도 한다. 도시 후커우를 가지지 못한 이 계층이 받는 불이익은 취업, 교육, 의료, 사회보험 등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는 저숙련 저임금 구조를 밑받침한 이 계층의 노동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이들이 받는 보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 3농 문제에 농민공 문제가 더해져서 중국이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더 많아지는 셈이다. 현재 중국 당국에서는 신행 중소 도시의 건설, 후커우 제도의 개선, 토지 제도의 개선, 다양한 농촌 진흥 정책

과 농업 발전 정책의 실시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 코로나 영향과 경기 침체, 해외 기업의 중국 탈출 등의 여파로 인해 일부 농민공들이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농촌으로 되돌아간 인력들은 사실 농촌에서도 유리되어 있고, 도시에서도 유리태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부유하는 하층 계층이기도 하다.

또 다른 심각한 미래의 문제도 안고 있다. 강력한 1가지 1차년 정책은 인구 감소 시대를 중국에 나타나게 했고, 이 정책은 도시에서 강력하게 시행되고 농촌은 느슨한 편이었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면서 도시 거주민들의 사고에도 영향을 미쳐, 1차년 정책이 폐지되었음에도 도시에서 신생아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농촌에서는 신생아 출산율이 도시보다 높은 편이다. 이는 미래 중국을 이끌고 갈 새로운 아이들이 농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와 같은 3농 문제를 안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농촌의 아이들은 교육, 보건의, 영양상태가 미흡한 상황이긴 하다. 중국의 미래 노동력 대다수가 모든 면에서 뒤쳐진 농촌 지역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갈수록 높은 수준의 숙련된 고급 노동력을 요구하는 21세기의 추세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미래 중국의 인적 자원은 더욱 열악한 상태에 처해 있을 위험이 있다. 중국의 당과 정부가 처치해야 할 문제는 흔히 말하는 유령식 도시와 아프리카 같은 농촌이라는 거대한 도농의 지역적 격차를 조속히 줄이는 일이다.

기고



박성수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선타장

빛고을로 물려오는 세계의 중소기업인들

으며 현재 85개국 2000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빛고을에서 열리는 이번 세계 대회의 주제는 '인간성과 평화를 위한 기업이 정신'이다.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답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이 정신의 요체를 인간과 평화에서 찾고 있다. 주최 측에서는 이런 좋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 광주를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유망 지역 기업 시찰, گیا 챔피언스 필드 야구 관람, 아시아 이스포츠 센터 견학, ACC 투어 및 케이팝(K-pop) 공연, 국악 상설 공연, 무자사 템플 스테이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Biz)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수출 상담회, 대·중소기업 구매 상담회, 스타트업 투자 유치 및업, 지역 기업 쇼케이스 등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의욕적으로 준비한 'K-기업가 정신 글로벌 포럼'에서는 대한민국의 지속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업이 저항성에 초점을 맞추며 생성 협력, 소상공인, 정책 금융 세선별로 종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일주일간의 행사에서 단연 돋보이는 프로그램은 '휴먼 기업가 정신 광주 선언'이라고 하겠다. 빛고을의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해 함께 뜻을 모은 글로벌 휴먼 기업가 정신은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여주는 혁신의 노력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오늘날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가 지배적 경영 이념으

로 자리를 잡으면서 조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휴먼 기업이 정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를 제일의 가치로 존중하는 광주에서 개최되는 국제중소기업협회의 세계 대회의 만큼 인간 중심의 기업이 정신을 표방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성과 포용성 추구, 인간 존중, 조정과 협력 등 10가지 원칙 준수를 약속하게 된다.

누가 뭐래도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가의 사회 공헌은 역사사지의 배려 정신이 아닐까 싶다. 이를 잘 실천한 이가 우리 고장에서는 타인능력(他人能辨)로 잘 알려진 구례 윤조루 주인 류이주로, 서문 가마가 넘는 쌀을 해마다 뒤주에 채웠다고 한다. 게다가 쌀을 가져가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담장을 높이고 밭을 짓는 연기가 밖에서 보이지 않게 하도록 골목을 닦은 것은 이웃의 자존심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 광주에서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국제 행사가 열린다. 전 세계 75개국에서 중소기업인은 물론 유관 기관 관계자, 학자, 그리고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이벤트다. 공식적인 행사 명칭은 '2023 국제중소기업협회 세계대회' (2023 ICSB World Congress)로 지난 2009년 서울에 이어 1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리는 국제적 행사다. 2021년에는 파리, 2022년에는 워싱턴 DC에서 열렸고 내년에는 베를린에서 개최가 예정되어 있을 만큼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행사다.